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6호

호남제일고등학교 2017년 4월 14일

드림게시판

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의 '진로'가 보여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녀가 졸업 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졸업 후 진로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째, 진로정보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진학·취업 정보뿐 아니라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공·특례입학 등에 대한 진학정보와 취업 준비를 위한 장애인사업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프로그램 등의 정보는 자녀의 진로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진로경로입니다. 자녀가 잠정적인 진로목표를 세우고 경로를 설정할 때, 자신과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진학이나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장애 요소를 극복했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관련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생활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교과/비교과 진로활동을 선택하고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우선 자녀의 특성과 장점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진로활동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진로활동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가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재미를 느끼도록 유도해주십시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는 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직업교육, KB희망캠프, 꿈 더하기 지원센터 등이 있으니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습입니다. 자녀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자녀를 위해 부모님께서 먼저 자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학습 방법과 태도, 자격증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정보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디지털능력개발원이나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등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립생활 능력입니다.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게 하려면 일상생활능력, 학습능력(한국어), 대인관계능력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자립기반 사업과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녀의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의 진로가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경로를 알아보며,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녀가 진로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와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미래 가능성을 더욱 더 확장해주십시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센터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매뉴얼 및 지원정보 자료는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진로교육자료<학교진로상담지원(사회적배려대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피향미감정평가사

장애학생 취업 사례

장애유형(장애등급) : 지적장애(3급)
최종학력(전공) : 고졸(대안학교)
직업의 현장경력 : 2년(2016년 6월 기준)

Q1 직업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복지관을 통해 이 일을 알게 됐는데, 사실 와서 일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을 배우다 보니 적성에도 맞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지 않아서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Q2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나요?

저는 취업 후, 한 달간 직무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커피콩을 골라내는 일인데, 이 기간 동안 나쁜 커피콩을 구별하고 골라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지적해주는 부분들을 계속 고쳐나가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Q3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나쁜 콩을 골라내면 사람들이 더욱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이 기분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만든 맛있는 커피를 드시면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Q4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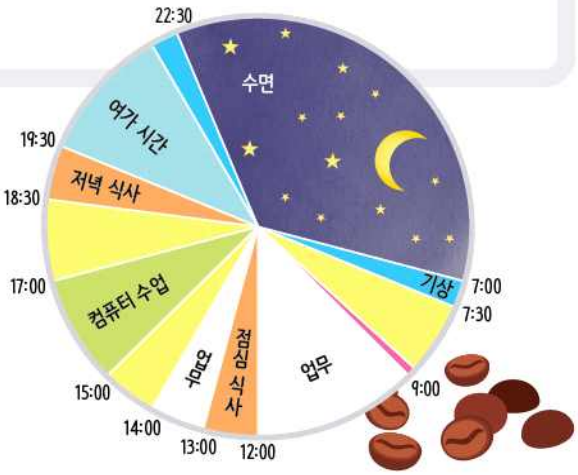
커피콩을 골라내거나 포장을 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할 때 소란하면 집중이 되지 않아 실수를 하게 되므로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Q5 커피향미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평소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적해주시는 문제가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므로 남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곳인 만큼 평소에 시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고 규칙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Q6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할 준비를 하고 7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하면 8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합니다.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1시부터 2시까지 다시 일을 한 후 퇴근합니다. 퇴근 후에는 3시부터 5시까지 컴퓨터를 배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잠은 보통 10시 30분쯤에 잡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